

부모의 지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따브카¹, 조혜정^{2*}

¹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²온세미로 심리상담연구소

The Effect of Parent's Support on School Adaptation of Immigrant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Moderating Effect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Davaadelger Erdenesuren¹, Hye-Jung Cho^{2*}

¹Graduate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²Onsamiro Psychological Research Institute

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지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을 위해 활용한 자료는 다문화 청소년패널 조사자료 중 2기 패널 2차(2020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PROCESS MACRO Model Number 4, PROCESS MACRO Model Number 1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부모지지는 학교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둘째, 부모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부모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중도입국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 부모의 지지,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parent's support on the school adaptation of immigrant adolescents to school lif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were the second panel data (2020) among the multicultural youth panel survey data. As for the data analysis metho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PROCESS MACRO Model Number 4 and PROCESS MACRO Model Number 1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parental support showed a positive (+) effect on school life adaptation.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support and school adaptation, self-esteem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rect effect. Third, it was found that cultural adaptation stress had no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support and school adaptation. Based on these results, policy and practical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school adaptation of immigrant adolescents to school life were presented.

Key Words : Immigrant Adolescents, School Adaptation, Parent's Support, Self-Esteem, Cultural Adaptation Stress

*Corresponding Author : Hye-Jung Cho(sotkfd8029@hanmail.net)

Received April 25, 2024

Accepted July 20, 2024

Revised May 31, 2024

Published July 28, 2024

1. 서론

글로벌 교류의 확산과 국내 노동력 감소와 같은 현상을 고려했을 때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나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족, 인종, 종교 등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높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문화 인구의 증가는 어떠한 문제 상황이 전개될지에 대해 그 누구도 확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흔히 뉴스 보도와 같은 언론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인종 차별과 종교적 갈등 등으로 인해 국외에서의 발생한 소요 사태나 폭동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자녀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3.2%인 168,645명으로 전년 대비 5.4%p 증가하였다[1]. 여기에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재혼을 하면서 본국의 자녀를 초청하여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을 한 뒤 부모와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의 경우를 포함한다[2]. 이들이 중도입국 청소년이다. 따라서 이들은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결혼하여 얻은, 전형적인 다문화가족 자녀들과는 차이가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이란, 부모의 이주나 국제결혼으로 인해 국내로 이주하게 된 청소년이다[3-5].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생활할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국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6,7]. 특히,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또래 친구들과 의사소통과 수업 등 학교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8,9]. 우리나라의 교육을 정식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언어 차이로 인한 자신감 결여, 심리·정서적 불안으로 또래 집단과의 갈등 등을 겪으면서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는다[10].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은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상 일반 청소년들처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다. 이에 더해 이들은 이주를 경험하면서 이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는데[11], 이 시기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12,13]. 따라서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의 적응은 이들의 인격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부모의 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부모지지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받는 긍정적인 자원인데, 자녀가 긴장과 스트레스에 일탈적 대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개인 외적 체계의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14].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변인이며[15], 다문화 학령기 자녀의 성취동기를 북돋아주는 심리자원[16]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회 관계적 지지요인[17]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가 자녀의 교육 활동에 관여할 때 학업성취와 인지적 발달을 이루게 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적응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이러한 청소년기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또한 영향을 미쳐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학교생활 적응에도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19].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심리적 변화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시기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 자아존중감의 발달이 있다[20].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발달은 유능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20]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에 있어 긍정적인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있어 적응 수준이 높으며,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는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는 이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학습의 측면에서 적응을 잘하게 되고, 높은 학교생활 적응 수준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 간에 순환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고했다[2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데 그중 부모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23]. Rosenberg[24]는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부모와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에 비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있고, 다수의 선행연구[25-27]에서도 부모의 적극적 지지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특별히 중요한 요인인데, 낯선 이국에서 적응하는 과정 중 겪는 갈등, 혼란, 심리적 불안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정서적 위축에 영

향을 주게된다[28,29]. 자아존중감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며 [30], 자신의 가치 및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토대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자원으로서 문화충돌과 갈등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31,32]. 이와 더불어 자아존중감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질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3].

한편,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이주 배경으로 인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는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지각하는 새로운 사회에서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말한다 [34].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가치관의 혼란과 또래 집단과의 갈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5-38]. 이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낮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우울, 역할 갈등 및 심리적 위축이 심할수록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은 한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며, 학교생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수행 여부가 이후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쳐 이들의 정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중문화 배경을 가진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충할 수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조절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다문화 관련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일반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일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익숙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중도입국 청소년은 본국에서 태어나 본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며, 정체성 역시 그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에 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고 정서적 지원의 핵심요소는 가족 지지 중에서도 부모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영향 관계를 바탕

으로 하여 부모의 지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다문화 사회구성원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Lucas et al.[39]은 자아존중감이 생활적응 및 삶의 질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있는 것으로 보고했고, Kim[40]은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예측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변인이 가장 많이 밝혀진 변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또한, Park et al.[41]은 다문화 청소년 모두에게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Ahn et al.[42]도 연령, 문화권에 상관없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으며, 이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가 어느 시기에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하고자 한다. 즉, 부모의 지지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 두 변인 간 관계의 강도를 조절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보일 경우 이를 상담에서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고 개입해야 하는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상담 실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부모지지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지지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할 것인가? 셋째, 부모지지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조절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연구가설

본 연구는 부모의 지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 간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

을 제시했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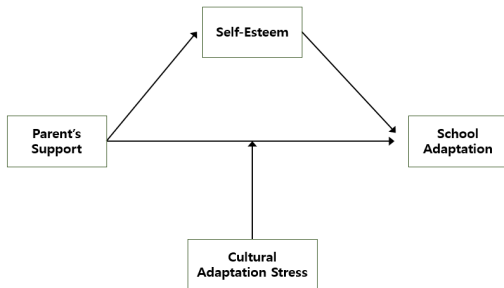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은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2〉 부모의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3〉 부모의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조절할 것이다.

2.2 분석자료 및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다문화 청소년패널(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조사자료 중 2기 패널 2차(2020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2기 패널 2차 조사자료는 다문화 청소년 초등학교 5학년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다문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구축한 자료이다. 또한, 본 조사는 확률비례추출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고, 다문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양한 측정 항목들을 조사하였다. 특히 2기 패널 자료부터는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등 다양한 가구유형별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자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패널 2기 패널 2차 조사(2020)에 응답한 다문화 청소년 중 중도입국 청소년 164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3 측정 도구

2.3.1 종속변수: 학교생활 적응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적응은 Paik et al.[43]의 연구에서 수정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학교생활 적응은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간 관련성이 높아 4문항

그대로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75로 나타났다.

2.3.2 독립변수: 부모의 지지

독립변수인 부모지지는 Kim[44]의 부모의 교육적 지원 및 기대 척도를 활용하였다. 부모지지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간 관련성이 낮게 나타난 1문항을 제외한 총 5문항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지지와 기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성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00로 나타났다.

2.3.3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Rogenberg[24]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Paik et al.[4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간 관련성이 높아 3문항 그대로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성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36로 나타났다.

2.3.4 조절변수: 문화적응 스트레스

조절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Noh[45]와 Hong[46]의 연구에서 수정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간 관련성이 높아 9문항 그대로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에 있어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구성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44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도입국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인 학교생활 적응, 부모의 지지,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인 학교생활 적응, 부모의 지지,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서로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

기 위해 PROCESS MACRO 모형 4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모형 1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을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 WIN 23.0과 Hayes[46]의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중도입국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도입국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빈도분석 결과는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 87명(53.0%), 여학생 77명(47.0%)으로 확인했다. 둘째, 어머니의 연령은 30대 이하의 비율이 71명(50.6%)으로, 아버지의 연령은 40대의 비율이 81명(49.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셋째,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고졸의 비율이 73명(44.5%)으로, 아버지의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 이상의 비율이 62명(37.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Variable	Ssection	n	%
Gender	boy	87	53.0
	girl	77	47.0
Mother's Age	under 30's	83	50.6
	40's	71	43.3
	higher 50's	10	6.1
Father's Age	under 30's	6	3.7
	40's	81	49.4
	higher 50's	60	36.6
	missing	17	10.4
Mother's Grade	under middle school	20	12.2
	high school	73	44.5
	college	25	15.2
	higher university	46	28.1
Father's Grade	under middle school	14	8.5
	high school	60	36.6
	college	11	6.7
	higher university	62	37.8
	missing	17	10.4

3.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첫째,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적응의 평균값은 3.195, 표준편차는 .486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부모지지의 평균값은 3.300, 표준편차는 .562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은 3.264, 표

준편차는 .53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값은 1.233, 표준편차는 .386로 나타났다. 더불어, 모든 주요 변수의 왜도값과 첨도값은 -.021~2.821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	Mean	S.D	Skew	Kurto
Y	3.195	.486	-.021	-.108
X	3.300	.562	-.370	-.475
M	3.264	.539	-.379	.630
W	1.233	.386	1.841	2.821

Y=School Adaptation, X=Parent's Support, M=Self-Esteem, W=Cultural Adaptation Stress

3.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첫째,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적응은 독립변수인 부모지지($r = .387, p < .01$)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r = .409, p < .01$)과 정(+)적인 상관을, 조절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r = -.367, p < .01$)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둘째, 독립변수인 부모지지는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r = .529, p < .01$)과 정(+)적인 상관을, 조절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r = -.297, p < .01$)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조절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r = -.288, p < .01$)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 of Major Variables

Variable	Y	X	M	W
Y	1			
X	.387**	1		
M	.409**	.529**	1	
W	-.367**	-.297**	-.288**	1

Y=School Adaptation, X=Parent's Support, M=Self-Esteem, W=Cultural Adaptation Stress, * $p < .05$, ** $p < .01$

3.3 가설검증

3.3.1 매개효과 검증

부모지지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Table 5).

분석 결과, 첫째, 부모지지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B = .508, \beta = .529, LLCI = .382, ULCI = .635$). 이는 95% 신뢰구간 하한(LLCI)값에서 상한(ULCI)값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둘째,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함께 투입되어 부모지지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지지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B = .205, \beta = .237, LLCI = .064, ULCI = .346$).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나($B = .255, \beta = .283, LLCI = .108, ULCI = .402$). 이는 95% 신뢰구간 하한(LLCI)값에서 상한(ULCI)값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셋째, 부모지지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나($B = .335, \beta = .387, LLCI = .211, ULCI = .459$). 이는 95% 신뢰구간 하한(LLCI)값에서 상한(ULCI)값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상기 결과를 토대로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분석 결과, 부모지지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 하한(LLCI)값에서 상한(ULCI)값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B = .130, \beta = .150, Boot LLCI = .046, Boot ULCI = .227$).

Table 4. Mediating Effect

Path	B(β)	S.E	95% C.I.	
			LLCI	ULCI
X→M	.508(.529***)	.064	.382	.635
X→Y	.205(.237***)	.072	.064	.346
M→Y	.255(.283***)	.075	.108	.402
X→Y	.335(.387***)	.063	.211	.459

Y=School Adaptation, X=Parent's Support, M=Self-Esteem, *p<.05, **p<.01, ***p<.001

Table 5. Bootstrapping

Path	Effect (B)	Effect (β)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Total Effect	.335	.387***	.063	.211	.459
Direct Effect	.205	.237***	.072	.064	.346
Indirect Effect	.130	.150***	.046	.046	.227

3.3.2 조절효과 검증

부모지지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부모지지와 조절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구성된 상호작용항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Coeff= -.208, LLCI= -.577, ULCI= .161). 이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LLCI), 상한(ULCI)값 기준으로 0이 포함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이다.

Table 6. Moderating Effect

Path	Coeff	S.E	95% C.I.	
			LLCI	ULCI
X→Y	.510	.230	.055	.965
W→Y	.278	.571	-.849	1.405
X*W→Y	-.208	.187	-.577	.161

R2-Change= .006, F= 1.239, p>.05

Y= School Adaptation, X=Parent's Support, W=Cultural Adaptation Stress, *p<.05, **p<.01, ***p<.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지지는 학교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보여 부모의 지지가 높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에 있어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부모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지지가 높은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에 있어 적응을 잘하고, 자아존중감은 두 변수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주는 결과이다. 이에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셋째, 부모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위의 연구결과에 따른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부모의 지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오에 따라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부모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과 상담 프로

그램에 부모지지를 포함시켜야 한다. 부모교육을 통하여 합리적인 지지환경을 증진시킴으로써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다문화 부모들은 한국의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 따라 자녀양육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정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상급학교 진학프로그램 등과 같은 별도의 부모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학업 및 교우관계를 통한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및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본격적으로 또래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한 다문화 감수성 및 다양성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을 돕는 교육은 물론 편견과 차별을 경감시키고, 이들이 또래친구와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상호협동 프로그램,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제도와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간의 활발한 사례공유 및 협력관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지지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부모의 지지가 낮을 경우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지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수준 역시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성공적인 성취 경험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학습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하여 한국어 보충 등 학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방과 후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의 지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지지를 통해 학교생활 적응이 높아진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이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학교생활 적응

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밝혀져[15,40,47]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있어서 우울과 불안, 고립감 그리고 혼란한 정체성과 같은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48]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 겪게 되므로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2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측정도구로 구성된 문항이 간단하고 대상선정에 있어 한계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측정도구를 다양화하여 이를 통한 검증과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 중에서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또래관계의 중요성은 중·고등학교 시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연구대상을 좀 더 확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보다 다양한 지원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

- [1]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of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2). *A Multicultural Family Students*. <https://kess.kedi.re.kr>
- [2] K. M. Yang & H. Y. Jo. (2011). The Status and Status of Middle-entry Youths. *A Collection of Expert Discussion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Support Policies for Middle-income Youth*, 99-113.
- [3] B. R. Ryu & S. B. Oh. (2012). An Analysis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and Adaptation of Immigrant Youth.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5(1), 29-50. UCI : G704-SER000003114.2012.5.1.003
- [4] D. H. Choi. (2014). A Study for the Research on the Identity of Immigrant Adolescents. *Multicultural Studies*, 3(2), 133-165.

- [5] K. M. Yang, Y. S. Jang & Y. M. Jung. (2020). *2020 Multicultural Youth Longitudinal Study: Basic Analysis Report: 1st Panel*. Sejong: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DOI : 10.22446/mnpisk.2021.15.2.007
- [6] D. H. Seo & E. S. Kim. (2015). *A Study on Vocational Group Development and Employment Support Plan for Youth from Migrant Backgrounds to Enter Society*. Seoul: Migrant Background Youth Support Foundation.
- [7] S. M. Lee., H. E. Lee & H. Y. Lee. (2017). A Study on the Status and Support of Youths in Seoul. Seoul: Seoul Women's Family Foundation.
- [8] N. J. Lee & M. Kim. (2017). A Narrative Inquiry on the School Life Experience of the Immigrated Youth of the Koryosaram.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0(1), 141-170.
DOI : 10.14328/MES.2017.3.31.141
- [9] N. K. Kim & B. K. Sun. (2018). An Exploratory Study on Living Conditions of Youth of Koryeoin: Focusing on Koryeoin Community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Multicultural & Diaspora Studies*, 13, 23-65.
- [10] G. M. Wang. (2017). *A Case Study on the Collage Art Therapy for the Migrant Youth*.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 [11] H. Harker. (2001). Immigrant Generation. Assimilation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Forces*, 49, 969-1004.
DOI : 10.1353/sof.2001.0010
- [12] D. H. Jwa. (2012). *Factors Influencing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of Immigrant Youths*.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 [1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3). Fourth Basic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Policy.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14] A. Robert & T. Brezina. (2018). *Juvenile delinquency: Causes and contro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15] J. Y. Park & H. J. Park. (2021). Impa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Bilingual Abilities on Self-esteem: Focusing on the Mediated Effects of Parent Support. *Multiculture & Peace*, 15(2), 157-181.
- [16] H. B. Hwan & E. S. Joo. (2022). The Effect of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on Achievement Motivation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y: Focused on the Mediation of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and Parental Support. *Journal of Social Science*, 61(2), 165-192.
DOI : 10.22418/JSS.2022.8.61.2.165
- [17] M. Y. Heo & C. K. Kim. (2022). Latent Profil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Psycho-social Adjustment: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5(2), 1-22.
DOI : 10.14328/MES.2022.6.30.1
- [18] K. R. Wentzel. (2003). School Adjustment. In W. M. Reynolds & G. E. Miller (Eds.), *Handbook of Psychology: Educational Psychology*, 7, 235-258. John Wiley & Sons, Inc..
DOI : 10.1002/0471264385.wei0711
- [19] T. Y. Jung. (2016). *Medi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on Relations Among Parenting Attitudes,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School Adjustment*.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Suwon.
- [20] M. Jung. (2010). *The Effect of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 on Adolescent's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 Thesis, Deagu Haany University, Gyeongbuk.
- [21] S. S. Lee. (2015). The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Focused on the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s by Gend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 29-55.
UCI : G704-000387.2015.22.1.017
- [22] J. Y. Yoon & E. J. Hur. (2017).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of the Reciprocal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icacy Student'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3(6), 775-798.
DOI : 10.24159/joec.2017.23.6.775
- [23] S. Coopersmith.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24] M. Rosenberg. (1985b).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 L. Leahy(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pp. 205-246). N.Y.: Academic Press, Inc.
- [25] H. L. Chang & R. H. Lee. (2019). The Influence of Parental Support on Career Decision-making Through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7*, 189-218. DOI : 10.20993/jSSW.47.7
- [26] S. D. Hwan & E. H. Park. (2010). The Effect of Parental Attitude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Science, 26(4)*, 123-145. UCI : G704-001638.2010.26.4.017
- [27] K. R. Choi & J. Y. Hong.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Mediating Effects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Studies on Korean Youth, 29(1)*, 347-374. DOI : 10.14816/sky.2018.29.1.347
- [28] S. B. Choi. (2011). The Analysis of the School Adjustment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4(2)*, 105-130. UCI : G704-SER000003114.2011.4.2.005
- [29] S. H. Yu. (2020). Self-esteem, Self-resilience, Cultural Identity and Acculturative Stress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South Korea. *Multiculture & Peace, 14(1)*, 134-158. DOI : 10.22446/mnpisk.2020.14.1.007
- [30] J. A. Banks. (1994).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MA: Allyn & Bacon.
- [31] C. I. Bennett. (2009).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6th ed). MA: Allyn & Bacon.
- [32] P. H. Kim & H. M. Yoon. (2020).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in Mediation on Self-esteem: A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7(1)*, 25-53. DOI : 10.21509/KJYS.2020.01.27.01.25
- [33] O. N. Kim. (2007). Mental Health of Immigrant Women in Rural Communities -Focusing on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2(3)*, 47-73. UCI : G704-001932.2007.12.3.006
- [34] J. H. Kim. (2019).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on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ediated by Depression and Self-esteem.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7(3)*, 115-124.
- [35] H. Jiang & E. K. Bae.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Psychological Maladjustment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62*, 131-164. DOI : 10.24300/JKSCW.2018.06.62.131
- [36] M. R. Yoon., Y. N. Jang & S. H. Hong. (2020).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ultural Adaptation Stress on School Adaptation: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9(3)*, 25-48. DOI : 10.30974/kaice.2020.9.3.2
- [37] L. N. Cui & C. R. Nho. (2022).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on Life satisfaction Amongst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Double-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Studies on Korean Youth, 33(4)*, 59-87. DOI : 10.14816/sky.2022.33.4.59
- [38] Lucas, R. E., Diener, E., & Suh, E.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3)*, 616.
- [39] H. S. Kim & K. C. Kim. (2023). The Effects of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of Multicultural Youth on Their Adjustment to School: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Science, 34(1)*, 19-38. DOI : 10.16881.jss.2023.01334.1.19
- [40] D. J. Park & S. M. Kim. (2023).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on School Life Adjustment: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and Self-esteem.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4(1)*, 147-155. DOI : 10.5762/KAIS.2023.24.1.147

[41] S. J. Ahn., H. C. Lee & J. Y. Lim. (2013). The Influences of Conflict with Parents,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31(2), 77-91.
DOI : 10.7466/JKHMA.2013.31.2.077

[42] H. J. Paik., H. J. Lim., H. C. Kim & S. R. Yoo. (2017). *Comprehensive Youth Survey 2017*. Sejong: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43] S. K. Kim. (2001). Determinants of Adolescents' School Dropout.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28, 21-39.
UCI : I410-ECN-0102-2009-300-004375421

[44] C. R. Noh. (2000). Use of Rosenberg's Self-esteem and Collective Self-esteem as Predicting Variables for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Kor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0, 107-135.
UCI : I410-ECN-0102-2009-330-006287922

[45] J. J. Hong. (2004). *Study on Psychosocial Adaptation of Youth in Mongolian Migrant Workers' Family*.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46] A. F. Hayes.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51(3), 335-337.
DOI : 10.1111/jedm.12050

[47] H. S. Cha. (2021). Longitudinal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Social Withdrawal, and

National Identity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8(10), 489-523.
DOI : 10.21509/KJYS.2021.10.28.10.489

[48] G. T. Kwon. (2018). The Effect of Resilience on Positive Mental Health of the Immigrant Youths: focus on Moderating Effects of Stress of Cultural Adapt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5), 293-302.
DOI : 10.35873/ajmahs.2018.8.5.029

따브카(Davaadelger Erdenesuren) [정회원]



- 2018년 2월: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석사 졸업
- 2020년 9월 ~ 현재: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중도입국 청소년, 사회복지, 심리학

• E-Mail : angelica.davka@gmail.com

조혜정(Hye-Jung Cho) [정회원]



- 2020년 2월 :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졸업
- 2022년 3월 ~ 현재: 온세미로심리상담연구소
- 관심분야 : 청소년, 가족상담, 다문화

• E-Mail : sotkfk8029@hanmail.net